

# “토박이 군수 장점 살려 군정 운영”



이두현이 만난 사람

김철우 보성군수

“녹차수도 보성” 군정을 이끌고 있는 김철우 군수를 만났다. 보성에서 태어나 성장하고 정치에 입문, 군의원 3선에 군의회 의장까지 역임한 그의 이력이 말해주듯 보성을 꿰뚫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군정의 무거운 짐을 짊어진 그는 고향발전엔 목말라 있었다. 김 군수에게 보성의 현재와 미래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보성군정을 견제하던 입장에서 군정을 직접 운영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무엇이 다른지.

▲의회와 집행부는 시각과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 보성발전을 위한다는 큰 틀의 목표는 같다. 저는 보성군의 원으로 3선을 했고, 이번엔 보성 토박이 군수로 임무를 맡게 됐다.

군수는 그 지역 출신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지역 실정을 몸소 체험하며 자랐기 때문에 시행착오 없이 안정적으로 군정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보성을 떠나 중앙당 활동을 하는 동안 객관적으로 보성을 바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객관적인 시선과 무한한 애정으로 문제점을 찾아내고 보완하고 개혁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노력하고 있다. 군수라는 자리의 무게가 그렇다. 군정 전반을 고루 살펴야 하고 치우침이 없어야 한다. 원칙과 정도를 매일 같이 깊이 고민하고 있다.

-취임 이후 군정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외부의 시선에서 본 보성의 문제점을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직원들에게 처음부터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제안제도 활성화와 적극적인 공모사업 신청이다. 제안의 경우 일일이 읽어보고 하나하나 직접



김철우 보성군수가 최근 본지 이두현 동부권취재본부장을 만나 보성군정 전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보성군 제공

## 다양한 의견청취로 치우침 없는 군정 실현 제안 제도 활성화·적극적인 공모사업 참여 녹차산업 육성·축제 내실화로 관광객 유치

챙기고 있다. 형식에 얽매지 않고 쪽지에 써서 제출해도 받아들이고 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만 있다면 진흙속보성이라는 진주를 세상 밖으로 꺼낼 수 있다고 믿는다.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중앙부처 등을 오가며 열심히 사업을 설명하고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다. 그 결과 취임이후 지금까지 1,067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내실 있는 사업추진으로 변화하는 군민의 삶, 행복하고 운택한 군민의 인생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첫 걸음을 이제 막 뒀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인구 감소가 전남의 공통된 현안이다. 귀농·귀촌 대책은.

▲정부에서도 2022년까지 귀농귀촌인구가 100만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군 장점을 살린 귀농귀촌인구 유치를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귀농은 직접 농사에 뛰어드는 사람들이고, 귀촌은 연금 생활자와 같은 시골에서의 여유로운 삶, 쾌적한 생활 여건을 기대하고 내려온 사람들이다. 이에 따라 이주 목적에 맞게 대응 방식을 달리 해야 한다. 귀농인구는 직접 농업에 종사하며

즉각적인 소득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 단기소득 작물 개발 및 스마트 농업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귀농정착장려금과 같은 지원제도도 더욱 탄탄하게 정비해 안정 정착과 성공 귀농에 초점을 맞추겠다.

귀촌인구에게는 보성이 살기 좋은 고장임을 어필 할 예정이다. 2018년 전국 시군구 중 100세 이상 인구가 가장 많은 최장수군으로 발표돼 장수고령의 타이틀을 갖게 됐다. 또 전국에서 오존 농도가 가장 낮은 공기 청정 지역이다. 이러한 강점을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내실 있는 정책을 펼치고자 한다.

-보성은 ‘녹차수도’다. 녹차산업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최근 커피 열풍에 밀려 녹차 소비가 많이 위축되고 있는데 사실이다. 이를 돌파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직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 녹차제품 개발과 연구에 중점을 두고 녹차가 대량 소비될 수 있는 아이디어 상품 개발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안정적인 유통망 구축과 판로 개척에 더욱 힘써 나갈 예정이다. ‘녹차수도 보성’을 전국적으로 어필

할 수 있는 축제도 구상하고 있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킬러축제’가 필요한데.

▲전국적으로 알려진 5월 보성녹차대축제(다향제)와 10월 서편제보성소리축제, 12월 차밭 빛 축제가 있다. 내년부터는 보다 효율적인 축제 추진을 위해 ‘녹차대축제와 보성소리축제’를 같은 시기에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벌교읍의 꼬막축제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규모 뽕배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구상 중이다.

-여가 시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아직까지 여가 시간을 보낼 만큼의 여유가 생기지는 않았다. 주말에는 대개 군에서 이뤄지는 각종 행사에 참석해 군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종종 제암산이나 일립산을 찾아 등산을 하기도 한다. 그래도 여가 시간이라 말할 만한 것은 텃밭에서 무우나 호박을 따서 아내와 함께 생선 조림에 저녁을 먹는 시간 정도가 가장 여유롭고 소박한 행복의 시간이다.

-군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떠날 때 박수 받을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겠다. 아울러 약속한 공약을 임기 내 이룰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믿음을 갖고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리=동부취재본부 김근중 기자

#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조기추진 토론회...“제5차 국토종합계획 반영을”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사업을 국가미래를 위해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9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6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주승용 국회의장과 여수시의회법제사법위원장 등이 주최하고 여수시와 남해군 등이 주관하는 해저터널 조기추진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와 정부부처, 연구기관 관계자뿐 아니라 여수선언실천위원회, 재경여수항우회 회원 등 여수 시민과 남해군민 수백여 명이 참석해 해저터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조상필 광주전남연구원 실장은 국내외 해저터널 건설현황을 소개한 후 해저터널 건설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 실장은 “여수~남해 해저터널은 지역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이라며 “에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추진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하경준 경남발전연구원 박사 또한 해저터널의 효과와 시사점을 발표하며, 건설 추진을 강조했다. 주제 발표 후에는 이정록 전남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이상현 국토교통부 과장, 유정복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 이백진 국토연구원 본부장, 신우진 전남대 교수, 김영경상대 교수 등이 패널로 나섰다. 토론회에는 이주영 국회의장과 김부성·김두관·정인화·이용주·최도자 의원,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 등이 참석해 활발한 교류와 상생발전을 바라는 여수·남해 주민들에게 힘을 보탰다.

한편, 여수~남해 해저터널은 여수 삼일동과 남해 서면을 연결한다. 총 길이는 육상 1.73km, 해저 4.2km 등 5.93km로 5,04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수시와 남해군은 지난 1998년 도로 건설계획을 수립한 후 1999년부터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으나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못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목포 해양관광도로 건설을 지역공약으로 내세우고, 지난해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거제~고흥 남해안 해안도로를 연결하는 ‘쫓겨나올길’ 조성계획이 발표되며 해저터널 건설 목소리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곽재영 기자

## 고흥 녹동항 국가어항 평가 최우수상

내실 있는 어항 운영·관리 호평

고흥군은 최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3회 어촌마을 전진대회에서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한 국가어항 운영·관리 평가 최우수상과 시상금 1억 원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국가어항 운영·관리 평가는 2018년 기획재정부 재정개혁 과제인 ‘국가어항, 지자체 관리노력도 평가제 도입’로 지역관광 거점으로서 처음으로 실시한 평가제도다.

평가항목은 현지 운영·관리 실태, 환경개선 추진, 운영·관리 예산 편성 및 홍보 실적 등 8개 항목으로, 1차 서류평가를 진행한 후 심층평가 대상 항목을 선정해 2차 심층평가를 진행했다.

고흥군은 건어물판매장 이전, 노후 시설물 철거 등 내실 있는 어항 운영·관리와 녹동항 야간경관 사업, 고흥 장어거리 사업 추진 및 홍보를 통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동부취재본부=진종인 기자

## 곡성 인구문제 공동대응 특강

곡성군은 최근 곡성군민회관에서 인구문제 공동대응 특별강연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강연은 인구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김수연 박사는 결혼·출산·육아에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과 전반적인 인식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한정길 기자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 본부 061 - 743-4200
- 여수 010-8648-1236
- 광양 010-3622-9898
- 순천 010-2547-7890
- 구례 010-5431-4006
- 곡성 010-6764-6100
- 고흥 010-9151-2828
- 보성 010-3601-2060

## 순천만 가금농장 ‘습지개선지역’ 지정

순천시는 최근 순천만 철새도래지 주변에 위치한 가금농장 3개소를 포함한 인근 농경지가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됐다고 9일 밝혔다.

습지개선지역은 기존 습지보호지역의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 인위적인 관리를 통해 개선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순천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을 위해 기존에 지정된 순천만 인접 동천하구(2015년, 5.394km<sup>2</sup>, 환경부) 습지보호지역 주변 교량동과 별량면 일원 0.263km<sup>2</sup>를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이번 동천하구 습지개선지역 지정은

순천 탐사르 습지도시 인증 후 주민이 주도적으로 고병원성 AI 차단을 위해 농장주와 농민들이 가금농장 철거의사를 순천시에 밝혔다는 점이다. 앞으로 시는 국비를 확보해 동천하구 습지개선지역을 단계적으로 복원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박경식 기자

## 클릭! 고흥 소식



### 광양그린로타리클럽 사랑나눔

광양그린로타리클럽은 최근 클럽 사무실에서 이웃사랑 실천으로 (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에 TV 1대를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전달된 물품은 광양시로타리클럽 체육대회에서 종합 우승해 받은 TV 1대다.

권경태 광양그린로타리클럽 회장은 “앞으로 회원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앞장서는 광양그린로타리클럽이 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정경화 기자



### 곡성멜론 수출농업 경진 최우수상

곡성멜론주는 최근 ‘2018 수출농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고품질 딸기·멜론의 수출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수출농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서면심사를 거쳐 선정된 전국 5개의 수출경영체가 상품의 개발과 시장 확대 과정 등에 대해 성공사례를 발표했다. 그 결과 민간전문가 및 국민심사단의 심사를 통해 곡성군의 곡성멜론주식회사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동부취재본부=한정길 기자



### 구례경찰 김장김치 봉사활동

구례경찰서 청령동아리는 최근 토지면 노인전문요양원에서 김장봉사활동을 펼쳤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봉사에는 경찰서 직원 10여 명이 참여해 직접 김장김치를 담그는 등 어르신들과 훈훈한 정을 나눴다.

구례경찰서 김현식 서장은 “김장김치 전달 등 우리의 작은 도움이 어렵고 힘든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진석 기자



### 2018 여수 평화통일 원탁토론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수시협의회는 최근 여수 히든베 이호텔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역할’을 주제로 2018 여수 평화통일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한반도 평화변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의 여론수렴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원탁회의는 참가 단계에서 추천한 시민사회단체 회원, 대학생, 민주평통 여수시협의회 자문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동부취재본부=곽재영 기자